

2022년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정기대관 공모 심의 총평(1차 연극)

- 회의일시 : 2021. 11. 25(목) 12:30~16:00
- 회의장소 : 대학로예술극장 중연습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수미, 김일송, 염혜원, 조형준, 송시경

2022년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대관 공모 결과 총 186건이 접수되었다. 심의는 분야별 1차 심의와 통합 2차 심의로 진행되었으며, 본 심의평은 무용을 제외한 연극, 뮤지컬, 다원, 행사, 기타 등 총 108건에 대한 평이다.

먼저 전반적인 경향을 짚으면, 1차 심의 결과 전반적으로 SF 소재의 작품이 늘어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현재의 사회구조에 만족하지 못하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는 의견과 기술적으로 타 분야 학문(과학)과의 접점이 늘어난 결과라는 의견, 그리고 행정적으로 장르융합에 대한 지원사업이 늘어난 결과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 하나의 경향으로 재공연 작품이 늘어난 점을 들 수 있을 듯하다. 재공연 작품은 직전 연도에 초연된 작품부터, 지난 십 수 연간 단체의 레퍼토리로 공연된 작품까지 다양하였다. 특히 제작비 규모가 큰 대극장의 경우, 재연작이 많이 접수되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올해(2022년), 올해의 레퍼토리 사업이 폐지된 영향이 있을 듯 보인다.

물론, 저 두 가지 경향에 속하지 않는 작품이 더 많았으며, 1차 심의는 그러한 경향성을 떠나서 오로지 작품의 예술성과 공연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 그리고 해당 분야의 파급효과, 신청 단체의 활동 실적 및 운영 역량을 기준으로 진행되었다.

심의위원에 따라서는 창작 초연에 점수를 준 예도 있었으며, 재공연에 점수를 준 경우도 있었다. 전자는 신작개발에 대한 단체의 도전 의식에, 후자는 완성도를 향한 단체의 의지에 힘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재공연작의 경우, 작품이 ‘지금’ 다시 재공연되어야 하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는 게 관건이었다. 당대의 상황을 반영한 업데이트나, 초연의 미진했던 부분을 업그레이드한 작품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앞선 기준 중 해당 분야의 파급효과와 관련해, 작품이 신선한 서사나 참신한 양식을 보여주며 해당 장르의 주제나 형식의 확장을 꾀하며 공연계에 예술적 영감이나 동기를 부여하는가를 중점적으로 보았다. 더불어 관객 확대에도 기여하는가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관객개발은 작품의 수월성과 더불어 공공기관(극장)이 가져가야 할 임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축제의 경우, 가장 중시한 부분은 축제의 정체성이었다. 다음으로 접수 서류에 축제의 라인업이 기재되어 있는가, 그 여부를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프로그램이 확정된 축제이어야 심사위원의 주관이 아닌 객관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향후라도 대관에 지원하고자 하는 단체라면, 이러한 대목을 눈여겨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차 심의에서는 2차 심의에 오를 총 68건의 작품을 선정하였다.

2022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정기대관 연극분야(1차) 심의위원 일동